

부산시, 中企자금 매월 접수받고 신청 횟수제한은 없앤다

中企 자금지원계획 전면개선

기술혁신 특별자금 신설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30억 대출
소상공인 기존 사업도 지속

부산시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전면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기의 확대다. 기존에는 짝수 월에만 연 6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금 지원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대 4회까지만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지원 횟수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기업이 자금 지원을 몇 번 받았든 필요시 언제든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기술 혁신 특별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져, 성장 가



부산시청.

/부산시

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폭이 넓어진다.

기술 혁신 특별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대출금 8억원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실시하는데, 1년 차에는 1.5%, 2~3년 차에는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점이나 주사업장이 부산에 위치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혁신 성장, 기술 창업, 일자리 창출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벤처기업이어야 한다. 기술 혁

신 특별자금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지원 사업도 계속 운영된다.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희망잇기 카드는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00만원 한도를 제공해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상품을

동시에 신청하면 총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 안에서 동백전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력 6개월 이상, 나이 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연 매출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과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 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으로 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과 기술 혁신 특별자금 신설을 통해 기업들이 필요할 때 자금을 공급받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경북도, AI 기반 돌봄서비스 스마트화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 AI 기반 돌봄로봇 산업육성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경북도가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스마트화 등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섰다.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실·국장, 공공기관장,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육성 전략 발표 ▲도민 경청간담회 및 국정과제 대응 세미나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보고 ▲실·국별 현안 및 2026년 주요 추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시된 3대 전략은 ▲AI 기반 R&D 스마트 돌봄 기술 고도화 ▲스마트 돌봄 실증·확산 허브 조성 ▲스마트 돌봄 로봇 산업 생태계 육성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AI·로봇 활용 돌봄 및 난임 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안전 대응 AI 로봇 개발 ▲돌봄 로봇 보급 사업 등 10대 과제가 제안됐다.

경북도는 현재 'AI 기반 돌봄 로봇 산업육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도민 경청간담회와 국정과제 대응 세미나, 저출생 극복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목소리와 전문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목포시, 3000억 규모 BESS 투자유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호남베스 유한회사와 '맞손'

목포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호남베스 유한회사(대표 조언우)와 3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베스 유한회사는 호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인프라 개발 및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개발사 에퀴스(Equis)의 자회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호남베스는 오는 2026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자해 목포대양산단 내 약 5200평 규모의 산업용지에 99MW(PCS)/700MWh급 BESS를 구축할 계획이다.

BESS는 재생에너지 등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이번에 구축되는 99MW급 BESS



(왼쪽부터)호남베스 유한회사 조언우 대표와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이 지난 1일 BESS 투자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에는 약 700MWh의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가 설치되며, 이는 목포시민 약 25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호남베스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도, 내년 예산에 국비 11.4兆 반영

주요 SOC 사업 예산 대폭 반영

경남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의 경남도 국비반영액이 지난해보다 1조 5336억원 증가한 11조 1418억원이라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 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AI·R&D 중심 혁신 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AI)과 연구 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경남도가 밝힌 2026년 국비예산의 주요 성과와 특징은 ▲사상 처음 국비 10조 원 돌파 ▲정부 예산안 증가율(8.1%)을 상회하는 국비예산 증가율(16%) 달성 등으로 요약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김해·부산·양산 대중교통 환승 '완전 무료'

김해시, 오는 19일부터 전환

김해시가 오는 19일부터 김해·부산·양산지역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완전 무료로 전환한다.

3개 지역 환승할인제는 2011년 5월 21일 도입됐다. 그동안 시민들은 관할 지자체가 다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경전철, 지하철을 환승할 때 일반인 기준으로 1회 500원, 2회 200원의 환승 요금을 부담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재정 지원으로 할인해 왔다.

인접 도시 간 이동이 늘면서 김해시

대중교통 수단의 환승 건수는 2024년 기준 총 612만 2000건을 기록했다. 매년 8%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인접 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직행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환승 이용 불편과 지자체 간 마찰이 꾸준히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와 경남도, 부산시, 양산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환승 요금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에 합의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이달 '구제역 일제 접종' 실시

영양군은 9월 1일부터 30일 까지 한 달간 관내 우제류 154호 6612두를 대상으로 '구제역(FMD) 하반기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구제역의 사전 차단과 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정례 방역 조치로, 소·염소·사슴 등 우제류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가접종을 원하는 전업농가를 제외하고 소규모·고령농가·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접종·보조 인력 지원·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고 접종 효과 확인을 위한 항체가(항체 형성률) 검사를 차례대로 실시해 미흡 농가에 대한 재접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주시

뉴질랜드와 APEC 협력 논의

주낙영 경주시장이 던 베넷(Dawn Bennett)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만나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던 베넷 대사는 주중 뉴질랜드 대사관 경제참사관, 뉴질랜드 국회 수석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 6월 주한뉴질랜드대사로 임명됐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함께 APEC 창설 회원국으로 1989년부터 활동해왔으며, 1999년과 2021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 시장은 베넷 대사에게 경주를 소개하며 뉴질랜드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주(경북)=김진권 기자 jinson@

김해시

공식 캐릭터 '토더기' 공모전 대상

김해시는 시 공식 캐릭터 '토더기'가 한국 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와 대전관광공사 공동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캐릭터의 인지도 향상과 활용 효과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김해시는 지난 7월 '정부/지자체 캐릭터' 부문 본선에서 지자체 3곳과 기초지자체 7곳 등 전국 10개 지자체가 경쟁하여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을 받았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의령군

대규모 유스호스텔 건설 착수

의령군이 224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유스호스텔 건설에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48억원과 국도비 17억원을 포함한 총 22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건립 예정인 유스호스텔은 연면적 4399㎡, 지상 4층 규모로 37개 객실을 갖추며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시설 안에는 회의와 학술대회를 위한 대회의장을 비롯해 식당, 카페, 체력단련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